

# 민주당 대사전면?...탈당 정치인 무혈 복귀땀 선거판 요동

### 6개월 앞 지방선거 3대 변수

### 이재명 승리 여부도 영향 클 듯

### 현역 평가 하위 20% 페널티 강화

### 이용섭·김영록 오늘 면접평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의 변수는 3가지가 꼽힌다. 우선 지방선거에 앞서 3개월 앞을 치러지는 20대 대선 결과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당내 '대사전면', 그리고 민주당이 오는 20일까지 안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다.

◇민주당 당내 대사전면과 대선 결과 따른 선거판 요동 =내년 지방선거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의 '당내 대사전면'이 우선 꼽힌다. 민주당은 과거 당 안팎의 반발 여론에도 대선을 앞두고 탈당 전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진행해왔다. '용광로 선대위', '원팀 대선'을 명분으로 탈당 전력 정치인 등을 특별 복당 형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감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후보가 안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대사전면을 거론하며 불씨를 지폈다.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탈당 경력자들에게 대한 페널티 조정 등 구체적인 대사전면 방침은 12월 중 출범할 중앙당 지방선거 기획단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최세정·정진우 무혈 복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탈당 경력자에 대해 페널티를 아예 안 주는 방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당헌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선거권 기준 10년 전까지 탈당 경력자에 대해 25% 감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느냐 여부도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재명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그의 당선에 앞장

서 도운 정치인이 주목받게 되고, 반면 윤석열 국민 의힘 후보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게 되레 패배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 것이라는 해석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로 현역 '칼질', 정치신인 주목 = 민주당이 진행 중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도 내년 지방선거를 흔들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2017년 선출직 공직자 평가 때보다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전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서 공천 심사에서 본인인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10%를 감산했는데, 이번 평가에선 감산 폭을 각각 20%로 올리며 대대적인 현역 칼질을 예고했다.

광역단체장 평가는 중앙당이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3연임 단체장 2명을 제외하면 8명이다. 페널티는 1명의 광역단체장만이 받게 된다. 지역에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일 당사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당의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회는 4명, 구의회는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된다.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하위 20%에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된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전남 기초의원 196명 중 39명이 하위 20% 대상이 된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은 애초 오는 15일까지 끝내려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평가 결과는 봉인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등에 활용된다.

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기득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곳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회에서 영입인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답라링 인공지능 연구자, 이 후보, 김윤기 AI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전문가. /연합뉴스

곳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며 '상왕' 역할을 하던 관행이 되풀이될 조짐도 보인다. 특히 최근 예비·사전경선 형태로 줄 세우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서둘러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진화해 나사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전남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이 곳 예비·사전 경선을 할 수 없다" 등의 지침을 내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재명 선대위, 청년 과학인재 4명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2001년생 AI개발자, 뇌과학자, 데이터전문가 등 청년 과학인재 4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는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인 김윤기(20) AI 개발자, 김윤이(38) 데이터전문가, 송민령(37) 뇌과학자, 최예림(35) 답라링 인공지능 연구자 등 4명을 '1차 국가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남성은 2001년생인 김윤기 씨가 유일하다.

이 후보의 취약지대인 2030 청년층을 겨냥하면서도 특히 여성 표심을 고려한 외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인재 영입 발표식에 참석해 이들의 면면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아주대 2년생인 김윤기 씨는 고교 시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AI 프로그램을 개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인 김윤이 씨는 데이터 활용 전문기업을 비롯해 N잡·소액투자 플랫폼 추천서비스 등 다수의 혁신 기업을 창업했다. 뇌과학자 송민령 씨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 전공한 과학자다. '송민령의 뇌과학 연구소', '송민령의 뇌과학 이야기' 등 과학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서울대 산업공학 박사인 최예림 씨는 답라링 기반 인공지능 연구자다. 2019년 이커머스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창업했고, 현재 서울여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부동산세 완화·탈원전 거리두기... '이재명 민주당' 차별화 시동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기치로 한 인적 재산 작업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탈원전에 거리를 두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색채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당·선대위 쇄신과 맞물린 이러한 흐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정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탈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이 후보의 평소 지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일어난다.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 송영길 대표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이라고보

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대표 정책이라도 여론이 외면한다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실용적 '유연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국민의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대편이 우세한 여론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보유세 카드를 접을 수 있음을 제차 시사한 것이다. /연합뉴스

##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5.5%·윤석열 34.6%

###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은 결과 전체의 35.5%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이

후보는 34.6%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다.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대선을 100일(지난달 29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